



로제 '아파트'



케데현 OST '골든'

## 그래미 D-6

‘골든’ 5개 · ‘아파트’ 3개 부문 후보

‘올해의 노래’ 놓고 선의의 경쟁

하이브 결그룹 ‘캣츠아이’ 신인상 도전

전문가 “팝 듀오/그룹” 수상 가능성

‘올해의 앨범’ 레이디 가가 등 3파전

세계적인 대중음악 시장식 제68회 그래미 어워즈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가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트랙 포 비주얼 미디어’ 후보에 이름을 올리며 총 5개 부문 수상에 도전한다.

‘아파트’는 본상 ‘송 오브 더 이어’와 ‘레코드 오브 오브 더 이어’(올해의 레코드)를 포함해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등 3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골든’과는 2개 부문에서 수상 경쟁을 벌인다.

아직 K팝 장르 그래미 수상자가 없는 상황에서 ‘골든’과 ‘아파트’는 K팝 장르의 첫 수상과 첫 본상 트로피를 동시에 노린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은 63~65회 시장식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올랐으나 수상과 연이 달지 않았다.

◇ 전문가들 “팝 듀오/그룹 노려봄지”···본상에는 엇갈린 예측 ‘골든’과 ‘아파트’는 뛰어난 대중성을 무기로 지난해 팝 시장의 최고 히트곡 자리를 꿰찼다는 공통점이 있다.

‘골든’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서 통산 8주 1위를 차지하며 신드롬을 일으켰다. 이달 초 골든글로브와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는 연달아 주제가상을 수상하며 기세를 높였다.

‘아파트’ 역시 ‘핫 100’ 최고 3위를 기록하고 지난해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MTV VMA)에서 ‘송 오브 더 이어’를 받으며 히트곡 반열에 올랐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골든’과 ‘아파트’가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에서 수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본상 가능성에 관해서는 엇갈린 예측을 내놓았다.

김도현 대중음악평론가는 본상 수상 가능성에 관해서는 “OST나 듀엣곡이 그래미 본상을 받은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본상 후보 지명만으로 뛰어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전망을 내놨다.

반면 임희운 대중음악평론가는 “빌보드를 비롯한 전통적 차트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래미 선정위원회 사이에 트렌드를 반영하려는 방향성이 작용할 수 있다”며 “‘골든’과 ‘아파트’는 짧은 힘은 열광하는 곡이면서 장기간 차트 성적을 증명한 노래라는 점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 최고상 ‘올해의 앨범’은 3파전 구도

시장식 최고상으로 여겨지는 ‘앨범 오브 더 이어’는 유력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라틴 팝 스타 배드 베리, 힙합 스타 켄드리 라마,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3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배드 베리의 ‘데비 티라르 마스 포토스’(DeBi TiRAR MaS FOTOs)는 라틴 팝의 다양한 하위 장르를 효과적으로 버무린 앨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2025년 글로벌 최고 인기 앨범 순위 정상에 오르기도 했다.

/연합뉴스

## ‘리얼리티’ 뒤 ‘리스크’

‘합숙맞선’ 등 출연자 잇단 사생활 논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SBS ‘합숙맞선’

일반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예능 프로그램들이 연이어 출연자 사생활 논란에 직면하며 방송가의 ‘검증 부실’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에 출연해 인기를 끈 임성근 세프는 최근 음주운전 전력 네 차례를 포함한 전과가 알려지면서 충격을 안겼다.

논란이 커지자 임 세프는 방송 활동 전면 중단을 선언했으며 섭외 경쟁에 열을 올렸던 방송가는 금지 ‘손절’ 분위기로 돌아섰다.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은 이미 촬영을 마친 임 세프 출연 분량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고, 김태호 사단 유튜브 예능 ‘살롱드립’ 역시 임 세프 출연 회차를 폐기하기로 했다. 또 SBS ‘동상이몽 2-너는 내 운명’ 측은 이미 촬영한 분량 중 임 세프를 최대한 편집해 함께 출연한 개그우먼 흥윤화 위주로 담기로 했다.

한편에선 ‘흑백요리사’ 제작진이 임 세프의 음주운전 전력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임 세프 측은 사전에 이를 제작진에게 알렸다고 주장했으나, 넷플릭스 측은 “2020년 발생한 1건의 음주운전 이력만 확인했다”며 “그 외 추가적인 형사 처벌 사실에 대해선 사전에 고지받은 바 없고,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논란은 지상파로도 번졌다. SBS ‘자식 방생 프로젝트-합숙 맞선’ 중 한 여성 출연자의 부적절한 사생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 논란에 대해 해당 출연자는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SBS 측은 “향후 남은 모든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전면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인 출연 예능의 흥수 속에서 제작진은 매번 ‘검증의 한계’를 토로한다. 사전면접 등을 통해 현재와 과거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관련 진술 위반 시 위약별 책임을 명시하는 계약서를 쓰지만, 출연자의 범죄 경력 명증서 등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반복되는 통편집과 방송 중단은 결국 프로그램 신뢰도를 깎아 먹고, 시청자들의 피로감을 높이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제작진이 출연자의 도덕적 리스크가 프로그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무겁게 인식하고, 방송의 화제성보다는 엄중한 책임 의식으로 섭외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 ‘축제’·‘춘향뎐’ 원로배우 남정희 별세

1962년 ‘심청전’ 데뷔 … ‘모래시계’ 등 영화·드라마 300여편 출연

원로배우 남정희가 지난 22일 별세했다. 향년 84세.

최근 원로영화인회와 유족 등에 따르면 고인은 22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1년 전 척추 수술 후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1962년 영화 ‘심청전’으로 데뷔한 고인은 이후 약 300여편

의 영화에 출연하며 배우로 활동했다.

데뷔 후 공백기가 있었지만 이후 임권택 감독의 ‘축제’(1996), ‘장’(1997), ‘춘향뎐’(2000), 배창호 감독의 ‘장’ 등 작품에 참여했고, 비교적 최근에는 영화 ‘늑대소년’(2012)과 ‘내가 살인범이다’(2012), ‘브라더’(2021) 등에서 노모 역을



소회했다.

드라마 ‘모래시계’(1995), ‘로맨스’(1998), ‘넝쿨째 굴러온 당신’(2012) 등에도 출연했다.

2011년 제48회 대종상영화제에서는 특별연기상을 받기도 했다.

빈소는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26일 오전 8시다. /연합뉴스

##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 유산 명칭 :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 등재기준 : (x)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 등재년도 : 2021년
- 유산면적

명칭	합계 (㎢)	유산지역 (㎢)	안전구역 (㎢)
총면적 (㎢)	2,030.03	1,284.11	745.92
서천 갯벌	104.66	68.09	36.57
고성 갯벌	74.11	55.31	18.80
신안 갯벌	1,773.40	1,100.86	672.54
보성-순천 갯벌	77.86	59.85	18.01

※ 유산지역 면적은 서울시(605.24㎢)의 약 2배, 전체 연안습지보호지역(1,497.24㎢)의 약 86%, 국가연안습지(2,482.00㎢)의 약 52%를 차지

###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자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의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인정

### ‘한국의 갯벌’이 가진 독보적인 특징

- 생물종 다양성을 높여주는 깊은 산소층
- 갯벌 주변에 섬과 산이 보이는 수직적 경관



수평선만 보이는 북서해안 연안의 외연에 갯벌

산과 산에 둘러싸인 철경을 보이는 한국의 갯벌

###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갯벌 경관

펄개벌 위에 새겨진 기하학적 모양의 조수로

자연이 선물한 아름다운 조수로

멸개벌 위의 수체화

새들의 휴식처인 사취와 암반서식처

갯벌 위에 출추는 무희, 사취

암반서식지 위에서 휴식하는 층도요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드는 특이ティ적체

모래-자갈 선향체, 세상에 알리지 않은 아름다움

계절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모래-자갈 선향체, 세상에 알리지 않은 아름다움

계절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모래-자갈 선향체, 세상에 알리지 않은 아름다움

계절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모래-자갈 선향체, 세상에 알리지 않은 아름다움

계절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모래-자갈 선향체, 세상에 알리지 않은 아름다움

계절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모래-자갈 선향체, 세상에 알리지 않은 아름다움

계절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모래-자갈 선향체, 세상에 알리지 않은 아름다움

계절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모래-자갈 선향체, 세상에 알리지 않은 아름다움

계절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모래-자갈 선향체, 세상에 알리지 않은 아름다움

계절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모래-자갈 선향체, 세상에 알리지 않은 아름다움

계절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모래-자갈 선향체, 세상에 알리지 않은 아름다움

계절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모래-자갈 선향체, 세상에 알리지 않은 아름다움

계절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모래-자갈 선향체, 세상에 알리지 않은 아름다움

계절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모래-자갈 선향체, 세상에 알리지 않은 아름다움

계절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모래-자갈 선향체, 세상에 알리지 않은 아름다움